

# 하이퍼전각으로 탄생한 가르침 '법화경'

## 조성주 작가 '불광전'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금강경〉전체를 돌에 새긴 '전각금강경'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서각가가 자 서예가 조성주 씨가 '2000일의 善行, 국당 조성주의 완각 하이퍼전각법화경-불광전'을 연다.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6여 년간 완각한 〈법화경〉 전문 7만여 글자가 선보인다.



조성주 작가가 자신의 전각 작품을 보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약5톤의 석인재(石印材)에 거대 전각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불교 설치미술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바로 서예 회화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퍼 전각'을 통해 동서양의 미학을 보여주는 데 있다.

서·화·인에 조각과 디자인 결합 동서양 미학 요소 표현한 설치미술 6년여 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

전시 기획자 전수향 씨는 "사방 1센티미터 크기의 법화경 본문 음각 글씨 입자가 여러 개 모여 사방 10센티를 형성한다. 또한 그것들이 조립되어 폭 1미터 이상 6미터까지의 크기로 대형화되는 석인재로 구성된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 "디스플레이 또한 작품과 최첨단 조명을 조화시켜 입체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퍼즐과 모자이크 방식을 대입해 장안해낸 독특한 기법의 설치 미술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고도 웅대한 불교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작업기간 내내 고행이라 생각하며 밤낮없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6년여 기간 동안 작가가 작업한 작품은 화려하고도 장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중국의 요녕성, 장화성 등 천연석을 사용했는데 그 무게만도 5톤에 이른다고 한다. 조성주 작가는 "서·화·인 그리고 조각과 디자인을 통해 동서양 미학적 요소를 장엄

〈법화경〉 총 28품 全文을 새겨 넣어 디자인한 '불광'은 본문 총 7만 1002 글자를 해서(楷書)체로 음각·양각하여 완성한 석각입체 작품이다.



조성주 작가는 5월 24일부터 불광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는 법화경 7만자를 새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대제(大題)-대자비(大慈悲-4개 품)-전법륜(轉法輪-3개 품)-광명(光明-3개 품)-법우(法雨-5개 품)-보탑(寶塔-1개 품)-공덕(功德-7개 품)-묘음(妙音-1개 품)-관음(觀音-2개 품)-성불(成佛-2개 품)로 나뉘어 전시된다.

전각 돌에 음·양각으로 작업한 불화의 석각 설치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세간도(世間圖)' '33관음도(33觀音圖)' '여래연지내영도(如來蓮池來迎圖)'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석각 설치 작품 '해탈(解脫)'은 가장 주목할 작품이다.

전시되는 하이퍼 전각 설치 미술작품이란 점에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그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미술계에 제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는 가로 10cm, 세로 12cm, 두께 2.5cm의 중국산 전각재인 요녕석 인제 약 3000편(약3톤)을 사용해 제작된 대형 작품이다. 이밖에 특별 석각 설치작품 '흑룡', 전각(인장) 장작 작품, 장작 입체조각 작품은 물론 작가의 서예 작품도 전시된다.

국당 조성주 씨는 원광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동양예술학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통 서예가다. 금강경 5400여 글자를 세계 최초로 10여년에 걸쳐 1200여방의 전각(인장) 작품으로 완각 1997한 국기네스북에 등재됐다. 2007년 음반 '계적' 1·2집을 취입 '노래하는 서예가'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조성주 작가는 "한국 미술사상 최초로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지리산 지통사 산중미술관 '목어전'

화재 극복하고 제작한 108개 작품 선배

10년 전 화재로 소실됐던 지리산 지통사 산중 미술관에서 목어전이 상설 전시된다. 2천 여 점의 그림을 화재로 소실하고 다시 그림을 그린 상묵 스님은 액운을 막아주는 목어 108점을 제작해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목어 작업을 하고 있는 상묵 스님

그는 "목어는 불교문화이기도 하지만 악기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와 잡귀를 물리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목어가 대중화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2001년 겨울, 화재로 30년 가까이 수행하며 그려온 그림을 모두 불태웠다. 그는 "수년간 그려온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기 며칠 전, 우연치 않은 화재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

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며 그동안의 감회를 전했다. 한편, 산중미술관은 목어 민화 병풍 선화 유화 등이 상설 전시된다.

정혜숙 기자

## 전국 40여 '산문' 렌즈에 담아

불교사협 전시회 6월 17일까지

제 17회 한국불교사지학회(회장 고희택) 회원전 '산문, 참 나를 찾아서'가 5월 14일~6월 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산문을 배경으로 한 회원들의 작품 40여 점이 조계종 국제선센터 등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양산 봉암사 일주문. 한불사 고희택 회장 작품

고흥택 회장은 "회원들 각고의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다. 부처님의 법문 한 자락을 듣기 위해 산문을 드나드는 간절한 마음을 사진 속에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국제선센터(5월 14-21일) ▷도선사(5월 22일-25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5월 26일-30일) ▷대구문화

예술회관(6월 12일-17일) 등지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불교사지학회는 이번 행사와 더불어 제 6회 청소년불교사지공모전 수상작도 발표했다. 대상은 배화여고 이하영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혜숙 기자

# 보이는 것 모두 진실 아냐...우주 질서 자연에 담아

라규채 '대나무-空에 美觀다'展, 서울 갤러리 나우서 5월 22일까지



"우리가 사물을 '보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라규채 작가는 서울 갤러리 나우에서 5월 22일까지 열리는 '대나무-空에 美觀다' 개인전에서 대나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의 형상에 다가가고 있다.

정된 정형이 아닌, 빛에 의해 부단히 변하는 무정형·비정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진은 알아야 보이고 깨달을 때 표현된다. 단순한 기계적 기술을 넘어서 사물의 근원과 본질의 다각성이 사진의 진가를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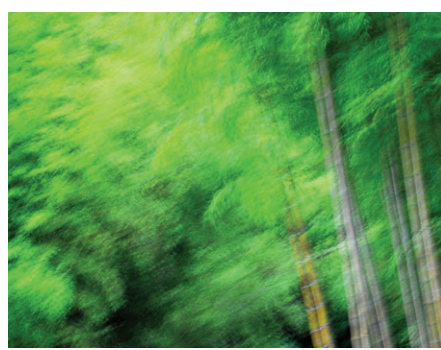
무형·유형의 근원과 본질 대나무 흔들림으로 표현

해준다. 사진작가 라규채는 기계가 탄생시킨 이미지에 마음과 정신이라는 관념적 이미지를 더한다. 라규채 작가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닌,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

다. 이는 작가가 모든 사물을 '공(空)'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가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대나무의 모습은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대나무 형상을 사물과 사물의 흐름 속에 놓인 공(空)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대나무의 흔들림 속에서 '실체란 없는 것', '우주적 리듬'을 찾고자 했다.

라 작가는 "공을 아름답게 보고 공과 친하게 싶다"고 했다. 그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다. 이번 작업을 통해 형상과 중량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을 매개로 사라짐과 드러남, 반복 속에서 우주의 본질인 공을 찾고자 했다"며 "바람으로 인해 형상이 점점 우주 속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無)가 아니라, 자연과 우



라규채의 '대나무' 전 작품

주의 원리인 공의 세계, 진공묘유(真空妙有)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망막의 단순한 지각활동이 아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지적(可知)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02)725-2930

이은경 기자 soej84@hyunbul.com

## 불락사 봉축 기념 '아리랑' 공연

평양 예술단 다양한 공연 펼쳐

아리랑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불락사'에서 들려오는 아리랑 공연이 전남 구례군 불락사 법고전(法鼓殿)에서 열린다. 5월 28일 제 27회 봉축음악제를 겸한 이번 공연은 김성녀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지난해 불락사 산사음악회 공연 장면

불락사는 "한민족의 영혼을 적서온 아리랑을 중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아리랑을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기획하였다"며 "아름다운 예의 가치를 노래한 아리랑을 樂歌(樂)로 표현하려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관음무 태평무 한량무 등의 춤에 아리랑 독주 및 노래, 서도 민요, 진도 아리랑 등이 불려진다. 또한 평양 예술단이 ▷'반갑습니다' 노래와 무용 ▷민속무용 ▷여성 독창 ▷혼성 2중창 ▷부

춤 ▷합창 등이 공연된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단지 조선족의 요구사항이라며 아리랑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무형문화재 등록을 진행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5월 3일 아리랑 등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스리랑카 Beacon Hall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 저지와 함께 목에 꽃을 걸고 있는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

증보판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경구를 읽다보면 많은 경전에 대한 섭렵과 경전에 대한 통찰에 세상 웃음을 가다듬게 한다. 특히 人間(人間)의 참재상은 물질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고 자신의 無知(무지)로 인해 선하지 못한 그 마음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라는 대목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

- 한국 빼일리 성전협회 대표 퇴원 전재성

근본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불교사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있어 있던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 동국대학교 교수 정병조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태평양 시대 위원회 이사장 김동길 박사

근대 과학의 巨匠(거장) 아인슈타인! 그는 불교란 지구 위의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 범우주적 신앙으로 보았다. 그는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말한 바 있다...

죽음의 족쇄를 풀어라. 무명(無明) 속에 있으면 오온(정신, 육체)은 내가 되고,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오온(정신, 육체)은 내가 아니네. 무명(無明)속에 있으면 생사(生死)는 나의 운명(運命),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생사(生死)는 꿈속의 꿈이네.

- 본문 중에서

저자 황경환

사) PTP 한국본부 제 13대 총재역임  
사) 한국불교연구원 이사과 연구위원 역임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비른불교선전포럼 회장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주)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 경주 ICS 대표이사

반야심경, 김사철, 황경환 공저 | 저서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

가격: 15,000원 / 구입문의: 054) 744-8211-2  
해나은행 (황경환) 502-910341-61007  
주)출판권차이리랑(도서관) 070-8866-2220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